

KoFIU 설립 20주년  
국제 컨퍼런스

# 기 조 연 설

2021. 11. 23 (화)

금융정보분석원장  
김 정 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정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날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마커스 플라이어(Marcus Pleyer) FATF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멀리 독일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부터 참석해 주신  
피야퐁 핑무앙(Dr. Piyapun Pingmuang)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님께도  
환영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임시대리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오늘 강연과 토론을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강연 순서대로, FATF VACG 공동의장\*으로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위험기반 지침서의  
개정 내용에 대해 강연해 주실  
일본 금융청(JFSA)의 하부치 타카히데(Habuchi Takahide)님,

\* Virtual Asset Contact Group Co-chairman

호주의 가상자산 규율 현황을 소개해 주실  
호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의  
에반 갤러거(Evan Gallagher)님,  
파라나즈 알람(Faranaz Alam)님,

디지털 전환을 통한 FIU업무 자동화에 대해 소개해 주실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의  
장폴 라롱드(Jean-Paul Lalonde)님,  
자낙 알포드(Janak Alford)님,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기술 활용사례를 소개해 주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이욱재 상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 분야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데,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교류가 제한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향후 활발하게 교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Ⅱ. 그 동안의 성과

---

내외 귀빈 여러분

2001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완비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STR 기준 : ('01) 5천만원 → ('04) 2천만원 → ('10) 1천만원 → ('13) 제한없음  
CTR 기준 : ('06) 5천만원 → ('08) 3천만원 → ('10) 2천만원 → ('19) 1천만원

### AML/CFT 의무 적용 대상도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신규 업권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피드백 활성화 등을 통해  
심사분석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해,  
2020년 FATF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Ⅲ. 신기술과 AML/CFT 제도

---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부문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은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P2P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어느 컨설팅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영역에서 디지털기술의 도입이  
몇 달 사이에 3~7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 Across key areas of the business model, companies' overall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had sped up by three to seven years in a span of months.(McKinsey, 「The new digital edge: Rethinking strategy for the postpandemic era」, '21.5.26)

이러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AML/CFT 제도 분야에서도 쉐테크(Suptech)\*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통상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와는 다른 방식의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FATF는 두가지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가이던스 개정안\*”과  
“AML/CFT 부문에서의 신기술의 도전과 기회\*\*”입니다.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2021.10월)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new technologies for AML/CFT(2021.7월)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FATF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오늘 국제 컨퍼런스의 두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ML/CFT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신기술이 AML/CFT 제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에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도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개사에 대한 신고수리가 결정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42개사에 대한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AML/CFT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엄정히 검사·감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노후화된 기존 FIU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등이 전송한 STR 정보를 지연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스템 보안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전산분석\*에 접목하여 고위험 STR에 대한 적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량의 의심거래 자금흐름을 자동분석·시각화하여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STR)의 자금세탁 혐의도 등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분석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IV. 마무리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기존의 금융은 “신뢰”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AML/CFT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신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국제기구,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의  
상호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AML/CFT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